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 계 식 이 재 창

홍익대 교육학과

본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심리적 요인인 성공공포, 성취동기, 그리고 역할정체감이 남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남녀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응답자는 수도권내에 있는 2개 대학에서 표집된 1,228명이었으며(남; 866명, 여; 362명), 남녀 학생간에 성공공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공포가 높을수록 성취동기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성역할정체감 유형별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성성 유형과 양성성 유형 집단의 성공공포가 높았다. 또한 성공공포수준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유형이 더 합리적이고 진로결정의 모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대학생의 경우 성취동기는 합리적인 진로결정유형과 학교적응수준에 대한 정적 예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업계획과 전공수준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 중 주동성이 정적 예언에의 기여도가 높았다. 남녀별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남녀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적응수준에서 남학생은 성취동기가, 여학생은 주동성이 정적예언에의 기여도가 가장 컸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공공포가 학교적응수준에서 부적 예언에의 기여도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직업계획수준에서 부적 예언에의 기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나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성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인 생애의 방향을 따라서 개인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기 결정짓는 커다란 결단이다. 진로선택의 결과에 때문이다. 즉 개인이 어떠한 직업과 진로를 선택

택했으나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 발휘의 기회, 거주지, 교우의 유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이재창, 1986).

이렇게 중요한 진로결정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과정을 거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에 대한 이해없이, 일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편견에 의해서, 또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외적인 요인을 추구하다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세계의 복잡성과 전문화로 인해서 학생들과 일반 대중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업성적 다음으로 진로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대학생의 경우는 진로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민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안한숙·유계식, 1994; 안한숙·송수민, 1994; 한덕웅·전경구·이창호, 1991), 장석민 등(1986)은 이러한 고민의 한 원인으로 진로선택시 자기 이해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와 당면문제가 진로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지도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공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 성공하기를 열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회피하려는 역설의 진리를 다른 한편에 소유하고 있다. 성공공포(fear of success) 또는 성공회피동기(motive to avoid success)는 성공접근동기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정의적 반작용을 내포한다. 성공공포는 성공에 대한 대립갈등적인 인간심리의 상징적 표현이며, 동시에 개체의 성장을 위하여, 극복되어야 할 명제를 암시한다(한정신, 1988). Horner (1968)가 처음으로 제안할 당시에는 성공공포를 여성만의 특성으로 보고, 성공에 의한 부정적 성과, 즉, 성공 때문에 오는 사회적 거부, 여성성의 상실 등의 예상이 성공을 회피·금지시키는 경향으로 정의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성공공포가 여성의 특성이라는 전제 아래 주로 여성의 성취동기와 결부되어 연구되었으나, 점차로 남녀 모두의 문제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성공은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밀도있게 조명되는 국면이며 또한 집단이나 개인의 현 위치를 제시해 주는 사회적 지표인 것이다(한정신, 1988).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공공포 또는 성공회피동기의 연구는 그 의의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보고된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진로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에서의 성, 학년, 전공계열별 차이(고향자, 1992), 진로결정 유형과 그 결정 수준과의 관계(정채기, 1991b),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체성(정채기, 1991a)과 여대생의 성역할 관련요인(임용자, 1994) 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성공회피동기를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고 성역할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진

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 후기의 남녀 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성공공포의 성차 및 성취동기와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 변인들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규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공공포는 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은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1. 성공공포와 성취동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성공공포와 성역할정체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성공공포,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은 진로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

1) 진로결정의 개념

진로결정이란 개인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결정과정'(decision process)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특별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의 표현으로(Crites, 1969), 학력이나 직업수준에 따른 사회적 기대에 대응하는 의식 태도, 협동, 그리고 사고의 종합으로(Jepsen,

1974),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진로에 대한 조건들을 관련지을 때의 사고행위로(Jepsen 등, 1982),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로상의 제문제를 다루는 결정으로(정채기, 1991a)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진로결정에 대한 이상의 정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과 직업의 선택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로 그 개념을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결정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진로결정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진로결정 유형과 개인의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결정 수준의 두 개 차원으로 구분된다. 진로결정 유형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유형으로, 진로결정 수준에는 학교에 대한 적응, 직업계획, 전공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어진다'.

2) 진로결정 이론

직업선택에 관한 최초의 논리적 관점은 1909년 F. Parsons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동시에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Parsons는 이러한 직업선택이 한 순간에 내려지는 결정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직업선택을 일

회적인 행위로 보는 정적인 개념은 그 후 Ginzberg와 그의 동료들(1951)에 의해 수정되었다. 그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한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성인초기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Super(1957)는 Ginzberg의 이론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직업선택을 진로과정에 도달한 한 순간의 사건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미흡성을 비판하면서, 직업선택에 대한 발달단계이론을 제시하고 일생을 통해 필요한 진로발달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고향자, 1992에서 재인용).

다른 연구자들은 직업발달 또는 진로발달이 결국 일련의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직업선택에서 다양한 선택시점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의사결정모형이 학교에서 생활 지도와 진로상담에 있어 중요한 준거체제가 될 수 있다는 Gelatt의 제안 이래로 진로결정에 대한 다수의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며(Jepsen & Dillely, 1974; Mitchell & Krumboltz, 1984), 직업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접근은 최근에 계속 관심을 받아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68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진로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체제의 확립에 관한 것이 새로운 연구분야로 대두되어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진로선택(career choice)과 진로결정(career decision making)간의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선택은 진로발달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인데, 진로발달 연구들은 “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진로를 갖게 되는가”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삶의 각 단계 또는 각 시기에 개인이 직면하는 발달과업과 의사결정자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진로결정 이론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보다 강한 심리학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의 성격을 통하여 진로행동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 진로결정모형에는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심사숙고하며, 또한 실행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Harren, 1979).

최근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고전적 의사결정이론에 기초한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연구들(Gelatt, 1962; Jepsen & Delley, 1974; Mitchell & Krumboltz, 1984)과, 진로결정을 일련의 발달단계의 견지에서 기술하는 발달적 접근(예; Harren, 1979), 그리고 진로결정에서 개인차를 확인하고 구별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Chartrand & Camp, 1991). 특히 Harren의 이론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결정과정, 개인적인 특징, 당면한 발달과업, 그리고 의사결정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개입에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진로결정상담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주는 Harren의 진로결정모형을 간략히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Harren은 진로결정이론·모형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과 같은 대인적 평가, 둘째, 불안수준과 같은 심리적 상태, 셋째, 구체적인 진로에 적합한 과업과 같은 과업조건, 넷째, 대인관계와 같은 관계조건 등이다.

진로결정에 대한 Harren의 모델은 의사결정의 과정, 특성, 과제, 조건을 매개변수로 하며, 의사결정의 개념적 틀은, 1)의사결정자, 2)결정상황, 3)결정자의 내·외적 정보, 4)대안행동들(둘 혹은 그 이상), 5)각 대안행동에 대한 몇 가지 결과의 예견, 6)각 결과의 가망성과 가치의 평가 등이 내포된다(Harren, 1979)

우선 Harren(1979)은 의사결정과정을 인식(awareness)단계, 계획(planning)단계, 참여(commitment)단계, 실행(implementation)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단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식(awareness): 이 단계는 자아와 대안(alternative)에 대한 인식단계로서, 자아개념의 발달정도가 대안들에 있어 개인의 인식 및 선택을 위한 인간 상호관계의 평가과정을 유도한다.

② 계획(planning): 이 단계는 개인이 고려하고 있는 대안을 일반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생활에 임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대안의 내적인 판단에 관련되고 기준이 되는 자아개념 체계의 실패는 바로 대안을 위한 정보의 일반화 및 과정화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단계의 필수적인 것은 자기정보에 대한 탐색, 즉 자아개념 및 과업에 관련한 행동적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다.

③ 참여(commitment): 이 단계는 개인이 실제적 결정에 관련되고, 그 결정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즉 대안의 실제적 결정에 관련한 자아개념의 재통합, 상호적 평가 그리고 긍정적·부정적 피드백 등을 기초로 하여 그 결정을 정교화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개념이 종합된 자아개념, 즉, 자아개념체계의 통합이 대안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다.

④ 실행(implementation): 이 단계는 개인이 계획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자신의 진로결정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진로결정에 대한 적응과 그 결정에 따른 성공, 만족 등의 피드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실행단계의 실천방법은 자아개념체계, 결정유형, 발달과업의 달성 정도 그리고 상호관계상황의 변화에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Harren은 진로결정과정을 자신의 전체이론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었다. 즉, Harren의 이론은 크게 진로결정과정, 진로결정자의 특성, 진로결정과업, 그리고 진로결정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2. 성공공포

Horner(1972)는 여성들의 성취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인으로 성공공포, 또는 성공회피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공에의 공포는 성공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미시간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178명을 대상으로 TAT유형의 언어적 단서를 고안해 실시한 결과, 학기말 시험에서 동시에 수석을 한 의과대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

해 남녀 대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65%가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에, 남학생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10%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하였다.

Horner(1972)는 이러한 성공공포를 동기에 대한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의 맥락 속에서 개념화시켰다. 즉, 개인이 그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신념에 비추어 자기가 성취해 놓은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그 성공의 댓가·가치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을 금지시키려는 방향으로 동기화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성공에 대한 부정적 성과의 예로서는 사회적 거부, 여성성의 상실, 개인적 파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은 성공한 여자들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회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불행해 진다고 생각하여 성공에 대한 일말의 공포와 불안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Horner는 이렇듯 여성성과 성취가 공존되어야 할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 사회문화적 상황에서는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공에의 공포는 안정적인 성격특성이며, 성공에 뒤따라 오는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Horner(1972)의 성공공포 개념에 대한 관심은 “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성취동기를 갖는 것으로 항상 평가되는가”를 밝히려는 시도에서 출발되었다. 그녀는 그러한 개념을 다음의 세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첫째, 지적 능

력 혹은 리더쉽을 포함한 성공은 보다 낮은 여성성과 관련된다는 둘째,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들에게 낮은 여성성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들을 피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지적 혹은 리더쉽에서의 성공을 더 회피한다. 달리 말해서 Bem은 여성들의 성공공포가 여성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녀는 성공공포의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그녀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예측된 바와 같이 그녀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성공공포를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Cano, Solomon, Holmes, 1984). 이후의 다른 연구들(Hoffman, 1974; Schwenn, 1970; Shinn, 1973)도 이러한 Horner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이렇듯 Horner는 성공공포를 여성에 치중시켜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Horner이후의 여러 연구들 특히 Zuckerman과 Wheeler(1975)는 성공공포에 관한 논문 15편을 분석한 결과 남녀의 성차가 없음을 밝히고 있듯이 Horner의 이 연구는 그후의 반복검증 연구에서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즉, 남자들도 여자 만큼이나 성공에의 공포나 두려움을 보이는 반응을 나타내, 정상에 오르는 경험이 주는 스트레스나 두려움, 그리고 부담감에는 남녀 차이가 Horner가 주장했던 것만큼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Horner의 여성 피험자들이 여성의 성공에 보인 부정적인 반응은 실제로 여자들이 성공에 대해 더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 보다는 현대 문화 속에서 성공적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김혜숙, 1992).

성공에 뒤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들 중의 하나는 그 성공이 성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의 것인가에 달려 있다. Horner의 최초의 연구에서 성공은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인 의과대학에서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간호학과 같은 여성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을 다루었다면, 반대의 결과가 보고되었을 것이다. 즉 보다 많은 남성들이 성공에의 공포를 보였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공포는 여성들의 영역에서의 성취적 시도들을 언제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성공에의 공포는 남성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성취동기가 높은 여성들의 경우에서만 수행 감소를 보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성격 특성이 아닌 상황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asow, 1992).

Pappo(1972)는 성공공포를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주관적·객관적 목표에 직면해서 눈에 띄게 그 목적 수행으로부터 도피·철회하려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성공공포를 측정하는 질문지의 내용으로 1) 자기부정과 부정적인 자기평가, 2)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경쟁적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경향, 3) 개인적 능력의 거부나 자기파괴행위를 하는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특징이 있으면 성공공포의 증거로 삼고 있다. 또 Majer(1979)도 “성취상황에서의 성공은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으로 성공공포를 정의하였다. 한정신(1988)은 “성공공포는 성공에 의한 부정적 성과 즉, 사회적 거부

또는 인간관계의 훼손 등을 예상함으로써 목표 수행 행동으로부터 도피 또는 철회하려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성공공포에 대한 이상의 개념 규정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성공공포를 “성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여 성공 장면에서 회피, 또는 철회하려는 심리적 기제”로 그 개념을 규정한다.

김효성(1983)은 이러한 성공공포가 생기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즉 성공공포는 가족내 초기 아동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즉, 부모 또는 형제와의 경쟁을 통해서나 아동의 독립성취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 그 가족 내의 대인관계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 문화, 도덕, 가치, 신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그 사회가 경쟁이나 성취, 성공, 실패, 승리, 패배 등에 대해 어떠한 신념체계를 갖고 아동을 사회화시키느냐에 따라 아동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결국 성공장면에서의 성취행동을 결정짓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성공공포가 높은 사람들이 성취장면에서 나타내는 행동은 대체로 세가지 동기경향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성공을 획득하려는 성공접근동기, 둘째, 성공이 거의 다 이루어질 때 성공이 주는 부정적 결과 때문에 불안, 두려움을 갖고 회피하는 성공회피동기, 셋째,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여 가능한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실패회피동기이다.

이 세가지 동기는 모두 성공공포를 가진 사람에게 공존하나 그 사람이 처한 그 순간의 심리적

환경특성에 따라 세 동기 중 하나가 우세하게 나타나며(임수정, 1987), Gumpert(1978)는 이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자존심이 낮고 불안정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의심이 많다. 둘째, 남에 의해 평가받는 것, 남과의 경쟁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순수한 성취적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는 경쟁상황이 그들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이 되므로 항상 그러한 상황에 민감하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려는 것은 자신의 신뢰가 부족하고 주위로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셋째,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자신의 능력 평가를 비하시키고 행운이나 타인의 도움 등 외적 요인으로 돌리며 성공한 사실 자체도 거부하곤 한다. 넷째,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면 실제로 성공회피를 위한 행동을 한다. 즉, 주위집중을 하지 않고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일을 지연시켜 성취를 방해한다. 성공 근접시에 일어나는 불안을 미리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이다.

Horner 이후에 성공공포와 관련하여 보고된 많은 연구들의 주된 흐름은 다음과 같다(한정신, 1988).

첫째, 성공공포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두드러진 특성인가?

둘째, 성취동기 및 지적인 능력수준과 성공공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성공공포의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성공공포는 실제 성취상황에서의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성역할 유형(sex-role orientation)과 성공공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관련하여 많

은 연구들이 쌓여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문제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론 및 실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면의 연구가 아주 미흡하다.

3. 성취동기

성취동기에 대한 개념은 Murray(1938)로부터 유래된다. 그는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인간의 행동을 성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면서 성격체제의 중심을 욕구(need)라 하고 환경체제의 중심을 압력(press)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지배(dominance), 자율(autonomy), 성취(achievement) 등 28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성취욕구를 누구나 탁월해지려는 욕망, 즉 “장애를 극복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어려운 어떤 것을 가능한대로 빨리 하는 물론 훌륭하게 해 내려는” 욕구라고 하였다.

McClelland(1965)는 동기를 “감정적 색조를 띤 연상적·망조적”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신의 탁월한 기준과의 경쟁, 독특한 업적, 장기목표에의 자아관여 등과 관련되어 감정을 유발시킬 때 이를 성취동기라고 하였으며, 이는 학습된 동기, 본질에 있어서 무의식적, 특정한 행동의 보상 또는 처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

McClelland와 함께 성취동기 이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Atkinson(1978)은 성취동기를 “성취로부터 자부심을 경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기대-가치모형(Expectancy-value framework)을 이용하여 성취동기이론을 발전시켰다. 동기는 어떤 만족이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성향을 뜻하고, 기대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를 뜻하며, 유인가는 그 목표를 달성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뜻한다. 그는 성취지향적 행동을 접근과 회피경향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로 보았다. 성취관련 행동은 만족의 감정이 수반되는 성공 가능성과 수치외의 감정이 수반되는 실패 가능성의 연합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성취로 인해서 유쾌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유쾌한 정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취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실패가 몰고 온 불유쾌한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형성된다. 즉, Atkinson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 성공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일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패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하였다. 즉, 성취욕구와 외부 환경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한 Weiner(1980)는 성취동기를 “성공이 내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지각하고, 실패는 불안정적 요인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지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성취동기가 McClelland나 Atkinson에서처럼 감정적 성향이 아니라 인지적 성향이라는 점이다. 그는 감정이란 인지적

평가의 결과라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요인이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의미하고, 불안정적인 요인은 노력을 뜻한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독특한 신념 때문에 성공했을 때 내적인 요인(능력이나 노력)으로의 귀인을 통해 자존심과 관련되는 유능성이나 자부심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또 실패의 상황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귀인하고 장래에는 노력을 배가한다. 이에 반해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특정한 요인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아직 불분명하고, 실패상황에서는 그 실패가 자신의 능력 부족(내적, 안정적 요인) 때문이라고 귀인한다. 따라서 성취동기 수준의 차이는 성공이나 실패 상황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각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요약해보면 McClelland, Atkinson, Clark 및 Lowell(1953)은 성취동기란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로, Atkinson(1964)은 ‘성취로부터 자부심을 경험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Weiner, Frieze, Kukla, Reed, Rest 및 Rosenbaum(1971)은 ‘성공결과는 내적 요소 특히 노력에 의해, 실패결과는 불안정한 요소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지각하는 능력이다’고 정의하고 있다(박영신, 1987에서 재인용). 그리고, 박용현(1974)은 “어떤 훌륭하고 어려운 일을 열심히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신속히, 또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동기의 정의는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밝힘으로써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 특성의 기술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행동 특성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일명·이정덕, 1995).

첫째,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적절한 모험을 좋아한다. McClelland(1961)는 고리던지기 게임을 통하여 성취동기를 연구하였는데, 성취동기가 높은 집단은 성공률이 있는 적절한 거리를 투척지점으로 선택한데 비하여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은 아주 가깝거나 먼 지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고 책임이 따르는 일에 대하여 보다 큰 흥미를 느끼며, 도전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과업에 임하여 열심히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신의 성취에 만족을 느낀다.

셋째,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과업의 지속성이 강하다. 즉,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하여 민감하므로 일에 대한 효율성을 격려할 때 성취동기는 상승하고 과업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데 비하여,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외부의 압력을 받을 때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과업의 지속성이 낮게 된다.

넷째,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과업시 동료 선택의 기준을 주로 경쟁 요인에 두고 항상 남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한다. 즉,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업의 동료로서 친구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

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 부족에 괴로워하며 그것을 극복하려 하기 때문에 친구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동료로 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미래 지향적이며, 새로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장차 획득하게 될 성취 만족을 기대하며 작업에 열중한다.

마지막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완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하여 늘 반성적인 특성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해보면, 1) 성취욕구의 측정방법과 환상적 측정에 대한 대안, 2) 성격 경향의 관계와 동기의 일반화와 안정성의 문제, 3) Atkinson의 성취동기이론과 포부수준, 지속성, 선택에 관한 연구들의 타당성, 4) 문화, 경제적 발전과 성취욕구간의 관계, 5) 성취 노력을 가져오는 발달상의 요인들, 6) 성취 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훈련 프로그램, 7) 여성들의 성취동기, 8) 성취 지향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 등에 관한 주제들이 연구되어져 왔다(Weiner, 1980).

4.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이란 개인적 정체감의 독특한 측면으로서 사회가 그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혹은 흥미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태련·장희숙, 1987). 전통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적'(masculine), 혹은 '여성적'(feminine)의 2개 개념으로 이분되었다. 남성성(masculinity)은 도구적, 주장적, 독

립적, 합리적, 성취적, 적극적, 주도적, 경쟁적, 비감정적인 특성과 같이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관련된 특성을 의미하며, 여성성(femininity)은 따뜻하고, 정서표현적, 수동적, 관계지향적, 감정적, 협동적, 직관적, 양육적, 민감하고 의존적인 특성과 같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특성들을 의미한다(김혜숙, 1992; Broverman, Broverman, Clarkson, Rosenkrantz, & Vogel, 1979).

그러나 Bem(1975)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 기대에 대한 강한 동일시는 부정적인 심리결과를 초래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고정적인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 남녀는 뚜렷이 다른 성격을 지녀서 여성은 여성성만을 남성은 남성성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양성적 시각은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여러 모로 심리적인 장점을 갖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각에서는 양성성을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심리적으로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적, 여성적 사람보다 성고정관념과 관계없이 상황적으로 효과적인 행동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적인 성역할 적응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Bem을 포함한 최

근의 여러 학자들은 전통적 성역할 기대는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애선, 1993; 정진경, 1990).

성역할과 관련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표현되는 행동이나 성격특성을 표현하는 용어로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용어를 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란 용어의 사용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허구적이고 이원적인 남녀의 성 개념을 강조하게 되고, 동성 간의 개인차를 무시하며, 행동기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Harren 등(1978)은 그들의 재개념화된 양성성 개념에서 남성성을 도구적 특성(instrumental qualities)으로, 여성성은 정서적-표현적 특성(emotional-expressive qualities)으로, 양성성은 도구적이고 표현적 특성 모두를 갖는 특성으로 개념화하였다(임용자, 1994).

이러한 성별 고정 관념의 내용은 대체로 “도구적-정서 표현적(Spence, Helmrich & Stapp, 1974)”, “능력, 합리성, 주장성 - 따뜻함, 표현성(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9)”, 혹은 “주도성 - 친교성(Eagly & Steffen, 1984)” 등으로 특징지워진다(김혜숙, 1992).

이렇듯 남녀간에 유사성 및 양성적 관점을 가짐에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연구는 성차보다는 개인차로 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차 및 성역할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역할 및 직업역할 개념으로 그 관심과 영역이 확대되었으며(임용자, 1994), 특히 여성의 직업 및 진로선택과 태도의 복잡

성에 대한 연구의 확대가 시도되어 왔다.

점차 성고정관념이 흐려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문화에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고,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취업이 절

대학생들 중 임의로 선정된 1228명이다. 검사는 1995년 9월 18일부터 1995년 10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되었다. 검사는 수업시간에 집단별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사전에 검사의 실시방법을 숙지한 담당교수, 혹은 연구보조원에게 의뢰하여 실시했다.

표 1. 표본의 지역, 성, 학년 분포 단위 : 명/(%)

지역 학년 성별	A 대 (수도권)					B 대 (서울)					전 체
	1	2	3	4	소 계	1	2	3	4	소 계	
남	88 (7.2)	146 (11.9)	306 (24.9)	163 (13.3)	703 (57.2)	24 (2.0)	32 (2.6)	67 (5.5)	40 (3.3)	163 (13.3)	866 (70.5)
여	40 (3.3)	39 (3.2)	104 (8.5)	40 (3.3)	223 (18.2)	57 (4.6)	44 (3.6)	22 (1.8)	16 (1.3)	139 (11.3)	362 (29.5)
전체	128 (10.4)	185 (15.1)	410 (33.4)	203 (16.5)	926 (75.4)	81 (6.6)	76 (6.2)	89 (7.2)	56 (4.6)	302 (24.6)	1228 (100.0)

표 2. 표본의 전공계열별 분포 단위 : 명/(%)

전공	공대	자연대	경영	사회	인문	사범	미술	계
빈도	463 (37.7)	148 (12.1)	116 (9.4)	205 (16.7)	113 (9.2)	51 (4.2)	132 (10.7)	1228 (100.0)

실히 요구되어지는 현 실정에서 여성들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또 이러한 양상이 성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차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2개의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등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최종 표집대상의 학교, 학년, 성별, 그리고 전공에 따른 분포는 표 1, 표 2와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성공공포 척도(Success Avoidance)

Karpick(1978)의 RICPS(Relationships Influencing Career Planning Sacle)을 임용자(1994)가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RICPS는 성공공포 22문항, 진로 대 가정(결혼) 갈등 22문항, 중요 남성의 영향 18문항을 합쳐서 총 6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본연구에서는 성공공포를 측정하는 22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84, 재검사 신뢰도는 .85였다.

2) 진로결정 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

Buck와 Daniels(1985)에 의해 수정·보완된 Harren(1966)의 ACDM을 정채기(1991a)가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진로결정 유형과 그 결정의 수준을 ‘그렇다’와 ‘아니다’로 평가하는 자기보고식의 94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평균 .73이다.

3) 성취동기 척도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창열(1986)이 제작한 객관적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단계 Likert식 검사도구로서 총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95이다.

4) 성역할정체감 척도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pence와 Helmreich(1978)의 PAQ(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를 수정·번안한 임용자(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두 26문항의 7단계 Likert식 도구로서 크게 남성성과 여성성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2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남성성에는 주도성과 공격·지배성, 그리고 여성성에는 연약성

과 이타성으로 구분된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류는 Marshall과 Wijting(1980)이 사용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즉 성역할정체감 측정치에 의하여 남성성, 여성성 점수를 평균점으로 분할하여 각 개인의 점수가 남성성이 평균치보다 높고 여성성이 평균치보다 낮은 사람은 남성적(masculine) 유형으로, 여성성이 평균치보다 높고 남성성이 평균치보다 낮으면 여성적(feminine) 유형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를 합한 전체점수가 평균치보다 높으면 양성적(androgynous) 유형으로, 그리고 전체점수가 평균치보다 낮으면 미분화적(undifferentiated)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에 의해 산출된 내적 합치도가 .83에서 .85이다.

결과 및 논의

1. 성공공포의 성별 차이

성공공포의 성별차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성별 성공공포 점수의 평균 및 차이 t 검증

성별(인원)	M	SD	t
남 (866)	35.67	11.14	-1.60
여 (362)	36.76	10.22	

성공공포의 평균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공포의 초기연구와는 대립되는 결과이다. 즉 Horner(1968)의 연구에 의하면 TAT를 사

용한 성공공포 측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성공공포를 나타내는 비율(여성 62%, 남성 8%)이 의미있게 높았다. 이러한 성차는 특히 남성과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 후 몇몇 연구들이 Horner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Feather & Simon, 1973; Karpicke, 1980).

그 후 성공공포를 주제로 한 Lois W. Hoffman(1974), Pappo(1972) 등의 연구에서는 Horner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남녀간의 성공공포에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Zuckerman 과 Wheeler(1975)는 Horner가 사용한 TAT 또는 그와 비슷한 도구를 사용한 15편의 성공공포연구를 모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차가 없음을 보였으며, Gravenkemper과 Paludi(198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차가 없었다. 한편, Sadd 등(1979)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성공공포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Feather & Raphaelson, 1974; Hoffman, 1974; Levine & Crumrine, 1975)은 백인 남성들에서 성공공포가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나, 반면에 또 다른 연구들(Deinhardt, 1973; Feather & Simon, 1973)은 남성의 성취관련 수행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백인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공공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여성들에서처럼 경쟁적 수행에 부적으로 관련된다는 증거는 없다.

흑인들에 대상으로 한 성공공포에 대한 연구는 일관성이 없다. 초기 연구(Weston & Mednick, 1970)에서는 흑인 남성들은 높은 성

공공포를, 그리고 흑인 여성들은 낮은 성공공포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흑인 여성들에서는 성공공포가 증가하는 반면, 흑인 남성들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posito, 1977에서 재인용).

Kearney(1984)는 성공공포에 유의한 성차는 없다는 결과와 함께,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몇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남녀 모두에게 높은 성취가 1) 타인에 대한 적대감, 질투, 위협, 2) 스트레스, 3) 성공한 사람을 이용, 4) 인간관계의 손상 등의 요인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한정신, 1988에서 재인용).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차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한정신(1988)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공공포점수가 남자대학생 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띠우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에 임수정(1987)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조(1984)의 연구에서도 모든 피험자가 남성의 성취보다 여성의 성취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성공공포에 남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성공공포가 다소 높기는 하나 유의한 수준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정신(1988)과 김문조(1984)의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이들 연구가 임수정(1987)의 결과와 일치되지 못한 이유가 다른 측정도구에 기인한 것인 지의 여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2. 성공공포와 성취동기의 관계

성공공포와 성취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및 성공공포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집단의 성취동기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상관관계는 ($r=-.4678$)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1$)의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상집단의 성취동기점수 ($\bar{X}=77.18$)가 하집단의 성취동기점수 ($\bar{X}=83.52$)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표 4). 즉 성공공포가 높을수록 성취동기는 낮아지고 성공공포가 낮을수록 성취동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는 초기 Horner(1968)가 제기한 문제로서 성공공포가 능력있고 성취동기가 높은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여성일수록 성공을 열망하고 성공쟁취를 위한 실제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성공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역시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성취동기가 높은 여성은 두개의 속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였다. 하나는 실패에 대한 공포, 다른 하나는 성공에 대한 공포로서, 이 성공에 대한 공포는 전통적 여성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회적 기대에 방해되는 성공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더 많이 교육받고 또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질수록 더 높은 성공공포를 나타냈다고 한다 (Caballero, Giles & Shaver, 1975; 한정신, 1988에서 재인용).

Esposito(1977)는 백인 여성들의 경우에 성취관련 상황에서 여성의 성공은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온다는 Horner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또한 백인 남성들의 성공공포가 직업에서의 높은 수준의 교육적 포부를 예언한다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백인 남성들의 성공공포가 성취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Shinn(1973)은 백인 남성들의 수행 감소를 예언하는 것은 성공공포가 아니라 실패에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높은 성취에 대한 전통적인 남성적인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성취에 대한 높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Zuckerman과 Allison(1976)은 성공공포와 Mehrabian Scale로 측정한 성취동기와의 상관연구를 한 결과 남녀 대학생집단에서 전체적으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Orlofsky(1981)도 성취동기와 성공공포 사이의 부적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정신(1988)의 연구에서도 성취동기수준을 상중하의 세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취동기 수준이 상에서 중, 하로 낮아질수록 성공공포점수는 점차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은 성공공포의 하위차원 모든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성공공포와 성취동기간의 부적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Zuckerman과 Allison(1976), Orlofsky(1981), 한정신(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표 4. 성공공포에 따른 성취동기 점수의 평균 및 차이검증

	집 단	인 원	M	SD	t
성공공포	상	661	77.18	8.41	-13.54***
	하	567	83.52	7.87	

*** P < .001

3. 성공공포와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공공포점수의 평균을 변량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성공공포점수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3.67$, $P<.0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분화성 유형의 성공공포점수($\bar{X}=40.07$)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성성 유형($\bar{X}=39.19$), 양성성 유형($\bar{X}=32.4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성 유형집단의 성공공포점수($\bar{X}=32.07$)가 가장 낮았다. 집단별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한($p<.05$)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남성성과 양성성, 여성성과 미분화성은 각기 동질 집단으로, 그리고 다른 집단들은 모두 이질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차이가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에서 두드러지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공공포와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내어보았다(표 7). 그 결과 성공공포는 남성적 특성인 공격성($r=-.4069$, $p<.001$)과 주동성($r=-.399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여성적 특성인 이타성($r=-.0810$, $p<.01$)과는 부적상관

을 그리고 연약성($r = .1539$,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들 상관들이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기는 하나 실제의 상관계수를 볼 때 성공공포는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남성적 특성인 주동성과 공격성과는 어느 정도의 부적상관이 있으며, 여성적 특성 중 연약성과는 약한 정도의 정적 상관이 그리고 이타성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공공포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실시된 몇몇 연구들은 세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양성성 혹은 남성성 유형은 여성성 혹은 미분화성 유형의 사람들보다 낮은 성공공포를 가지고 있다. 양성성 혹은 남성성 유형의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남성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남성성은 낮은 성공공포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일치되는 결과이다. 둘째, 남성성과 성공공포간에는 강한 부적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성과 성공공포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공포가 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 남성적 특징의 부재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공포가 여성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Horner(1969)의 기대와 일치되지 않는다. 셋째,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성공공포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놀라운 발견으로서 이를 즉각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표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공공포 점수의 일원변량분석

		M	SD	df	SS	MS	F
집단간	남성성(N= 295)	32.07	10.75	3	16891.62	5630.54	53.67***
	여성성(N= 293)	39.19	9.86				
	양성성(N= 314)	32.45	10.32				
	미분화성(N=326)	40.07	10.04				
집 단 내				1224	128403.24	104.90	
전 체				1227	145294.86		

*** P < .001

표 6. 성역할정체감과 성공공포의 Scheffé 검증

성역할 정체감유형	성공공포	동질집단 여부
남성성·여성성		이 질
남성성·양성성		동 질
남성성·미분화성		이 질
여성성·양성성		이 질
여성성·미분화성		동 질
양성성·미분화성		이 질

표 7. 성공공포와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

	주동성	공격성	이타성	연약성
성공공포	-.3991**	-.4069**	-.0810*	.1539**

* P<.01 ** P<.001

Cano 등(1984)은 남성적 특징 중 어떠한 요인들이 성공공포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성성 척도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남성적 특징 중 자신감, 결단성, 분석력, 독립심은 낮은 성공공포와 관련되며, 주장성, 경쟁성, 독단성은 성공공포와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Cano 등(1984)은 남녀 대학생 피험자를 그들의 생물학적 성에 관계없이 BSRI (Bem Sex Role Inventory)에 의해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등으로 분류하여 성공공포와 중다상관을 낸 결과 남성성, 여성성과 모두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지만 남성성과 더 강한 관계를 보였다. 즉, 여성적 특성의 존재보다 남성적 특성의 부재가 성공공포와 더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효성(1983)의 연구에서는 작문에 나타난 성공회피동기도 피험자 자신의 성공회피동기가 주인공을 통해 투사적으로 나타났다가보다는 남녀 주인공에 대해 갖는 사회적 성역할이 작용하여 여성 주인공의 성공, 성취에 대해 더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정(1987)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정체감과 성공공포 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 있는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F =240.61, df =269, P<.01). 본 연구 결과는 Cano 등(1984)과 임수정(1987)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공공포 점수에 있어서 양성

성 유형과 남성성 유형 집단이 동질집단임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여성성 특성의 존재보다 남성적 특성의 부재가 성공공포와 더 관련되어 있다는 Cano 등(1984)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성공공포,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 보듯이 성공공포와 진로결정의 합리적유형 및 진로결정 수준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성공공포와 진로결정과의 상관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 9를 보면, 성공공포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점수는 진로결정의 직관적유형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공포점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합리적 진로결정유형점수와 진로결정수준의 모든 하위척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적인 진로결정유형에서만 높게 나타났다.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유형간의 상관을 보면 성취동기는 합리적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r=.3386$)을, 그리고 직관적 유형($r=-.0744$)과 의존적 유형($r=-.1770$)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관계수를 고려해볼 때 성취동기는 합리적인 유형과의 관계에서만 어느 정도의 정적인 상관이 있을 뿐 직관적 유형과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척도와 진로결정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성역할정체감 중 남성성의 하위 요인인 주동성과 공격성, 이타성이 합리적인 유형과 유의한 정적상관($r=.2564$, $r=.1066$, $r=.1695$)을 보이고 있으며, 주동성과 공격성은 의존적인 진로결정 유형과 유의한 부적상관($r=-.4105$, $r=-.2140$)을 보이고 있다. 연약성은 의존적 유형과 유의한 정적상관($r=.3485$)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상관계수의 값이 작음에도 불구하고($r<.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표본수가 커지면서 표준편차가 작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즉, 남성성 척도 중 주동성은 합리적인 진로결정유형간에 낮은 정적 상관이, 의존적인 유형간에는 어느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격성은 의존적 유형과의 관계에서만 어느 정도의 낮은 부적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성 척도 중 이타성은 진로결정유형간에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연약성은 의존적 유형과의 관계에서만 어느 정도의 정적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재창과 유계식(1996)이 성취동기와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남성성, 여성성 척도와 그 하위요인들 중 주동성, 이타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p<.001$)을, 그리고 연약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r=-.0857$, $p<.01$)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볼 때, 성취동기와 주동성($r=.5796$)은 그 상관이 어느 정도 높고, 공격성($r=.3280$)과 이타성($r=.3014$)은 성취동기와 약한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연약성($r=-.0857$)과의 상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표 8. 성공공포,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과 진로결정의 관계

		진로결정 유형			진로결정 수준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학교적응	직업계획	전공
성공공포		-.1759**	-.0057	.1840**	-.1181**	-.1606**	-.2067**
성취동기		.3386**	-.0744*	-.1770**	.3183**	.1918**	.2910**
성역할 정체감	주동성	.2564**	.0125	-.4105**	.3110**	.2914**	.3460**
	공격성	.1066**	.0806*	-.2140**	.1355**	.1475**	.1980**
	이타성	.1695**	-.0376	.0217	.2878**	.1258**	.1607**
	연약성	-.0909**	.0800*	.3485**	-.0949**	-.2064**	-.1426**

* P<.01 ** P <.001

표 9. 성공공포수준에 따른 진로결정의 평균과 차이검증

집단	인원	진로결정 유형						진로결정 수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학교 적응		직업 계획		전공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성공공포	상	661	16.99 (2.50)	-4.11***	14.77 (2.10)	-.49	14.02 (2.42)	4.70***	86.74 (4.76)	-3.64***	28.42 (4.88)	-3.74***	29.25 (5.14)	-5.38***
	하	567	17.55 (2.30)		14.83 (2.11)		13.40 (2.17)		87.75 (4.92)		29.51 (5.30)		30.86 (5.35)	

*** : P<.001

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남성적 특성이 높을수록 성공공포는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성취동기는 높아지며, 여성적 특성 중 연약성은 이들 변인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여성적 특성 중 이타성은 성취동기와는 어느정도 정적상관이 있으나, 성공공포와는 거의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성공공포, 성취동기, 그리고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이 진로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10과 같다.

진로결정유형 중 합리적유형을 예언하는데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성취동기(정적 예언)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주동성, 이타성(정적 예언), 연약성(부적 예언)으로 나타났다. 직관적유형에서는 그 기여도가 공격성과 연약성(정적 예언), 성취동기(부적 예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적유형에서는 주동성의 기여도가 부적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으로 연약성, 공격성, 이타성의 순으로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진로결정을 예언하는 성공공포,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의 중다회귀분석(전체)

종속변인	추가되는 독립변인	R	R2	R2ch	B	SE B	BETA	F	
진로결정 유형	합리적 유형	성취동기	.33855	.11462	.11462	.09358	7.42806E-03	.33855	158.71***
		주동성	.34650	.12006	.00544	.02405	8.73572E-03	.09056	83.57***
		이타성	.35124	.12337	.00331	.02424	.01129	.06143	57.42***
		연약성	.35703	.12747	.00410	-.03105	.01294	-.07232	44.67***
	직관적 유형	공격성	.08059	.00650	.00650	.06893	.01404	.15267	8.02 **
		연약성	.13557	.01838	.01188	.04320	.01101	.11572	11.47***
		성취동기	.17347	.03009	.01171	-.02754	7.16299E-03	-.11458	12.66***
	의존적 유형	주동성	.41054	.16855	.16855	-.11823	9.12750E-03	-.46274	248.53***
		연약성	.47166	.22247	.05392	.10092	.01095	.24436	175.25***
		공격성	.48005	.23045	.00798	.06630	.01629	.13273	122.18***
		이타성	.49034	.24043	.00998	.04324	.01779	.11393	96.78***
	진로결정 수준	학교 적응	성취동기	.31835	.10135	.10135	.17664	.01502	.31835
이타성			.37662	.14184	.04049	.19434	.02255	.24539	106.24***
연약성			.39636	.15710	.01526	-.11053	.02348	-.12826	76.05***
주동성			.40358	.16288	.00578	.05510	.01897	.10335	59.49***
직업 계획		주동성	.29140	.08492	.08492	.16322	.01530	.29140	113.77***
		연약성	.31578	.09972	.01480	-.15015	.02756	-.16585	67.84***
		이타성	.32606	.10631	.00659	.07644	.02543	.09187	48.54***
		공격성	.33036	.10914	.00283	-.09506	.03951	-.08681	37.46***
		성공공포	.33591	.11283	.00369	-.03188	.01413	-.06799	31.08***
전 공		주동성	.34601	.11972	.11972	.20106	.01557	.34601	166.74***
		성취동기	.36338	.13205	.01233	.08240	.01975	.13625	93.18***

** P<.01 *** P<.001

진로결정수준 중 학교적응을 예언하는데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성취동기(정적 예언)였으며, 그다음에는 성역할 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이타성(정적 예언), 연약성(부적 예언), 주동성(정적 예언)의 순으로 기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획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주동성(정적 예

언), 연약성(부적 예언), 이타성(정적 예언), 공격성(부적 예언), 성공공포(부적 예언)의 순으로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서는 주동성(정적 예언)과 성취동기(정적 예언)의 순으로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에 대한 이들 요인들의 영향이 성별

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별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표 11, 표 12와 같다. 진로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을 예언하는 기여도는 남녀별로 추가되는 독립변인의 순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합리적인 진로결정유형에서 남학생은 성취동기(정적 예언), 이타성(정적 예언), 연약성(부적 예언)의 순으로 기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취동기만이 정적 예언에의 기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관적 유형에서 남학생은 연약성(정적 예언), 공격성(정적 예언), 성취동기(부적 예언)의 순으로 기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이타성에서만 부적 예언에의 기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척도 중 학교적응의 경우 남학생은 성취동기가, 여학생은 성역할정체감의 남성성 요인 중 주동성이 정적 예언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성공공포,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보았다. 그러나 이들 영향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 각각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즉 진로결정과 직업성숙에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연구들(고향자, 1992; Daniels, 1975; Westbrook 등, 1980)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들(Niece & Bradly, 1979; Pinder & Fitzgerald, 1983)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이재창과 유계식(1996)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은 진로결정수준 중에서 학교적응 척도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p < .01$) 나타난 반면에, 진로결정유형과 학교적응 척도를 제외한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학교적응 척도 점수의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진로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모두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진로결정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않았던 Niece와 Bradly(1979), Pinder와 Fitzgerald(1983), Lunneborg(1978)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취동기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 결과 또한 그리 일관되지 못하다(김혜숙, 1992; Mednick, 1979).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취동기는 남성의 성취동기보다 낮고 그러한 사실이 여자의 실제 성취를 남자만 못하게 만든다고 기대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들의 낮은 성취동기, 혹은 성공에의 공포와 관련된 여성들의 개인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결과 성취동기, 혹은 성공회피동기에서 성차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Kahn & Yoder, 1989; Tresemer, 1977; Veroff, Depner, Kulka, & Douvan, 1980).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표 11. 진로결정을 예언하는 성공공포,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의 중다회귀분석 (남자)

종속변인	추가되는 독립변인	R	R2	R2ch	B	SE B	BETA	F	
진로결정유형	합리적 유형	성취동기	.33025	.10907	.10907	.08715	8.47424E-03	.33025	105.77***
		이타성	.33730	.11377	.00470	.02854	.01334	.07255	55.39***
		연약성	.34378	.11819	.00442	-.03049	.01467	-.06887	38.51***
	직관적 유형	연약성	.11886	.01413	.01413	.04694	.01334	.11886	12.38***
		공격성	.15870	.02519	.01106	.05200	.01662	.10747	11.15***
		성취동기	.19533	.03815	.01296	-.02829	8.29820E-03	-.12017	11.40***
	의존적 유형	주동성	.39264	.15416	.15416	-.09936	7.91787E-03	-.39264	157.47***
		연약성	.46679	.21790	.06374	.10893	.01299	.26213	120.22***
		이타성	.47873	.22918	.01128	.04477	.01260	.12124	85.43***
공격성		.48462	.23486	.00568	.04947	.01957	.09718	66.07***	
진로결정수준	학교 적용	성취동기	.31061	.09648	.09648	.16678	.01736	.31061	92.23***
		이타성	.36134	.13057	.03409	.18258	.02756	.22807	64.80***
		연약성	.38065	.14489	.04841	-.11170	.02939	-.12400	48.69***
	직업 계획	주동성	.30947	.09577	.09577	.17892	.01870	.30947	91.51***
		연약성	.34797	.12108	.02531	-.17729	.03336	-.18673	59.45***
		성공공포	.35490	.12595	.03018	-.03689	.01625	-.07895	41.41***
		이타성	.36140	.13061	.03484	.06573	.03062	.07790	32.34***
	전공	주동성	.34644	.12002	.12002	.20783	.01914	.34644	117.84***
		성취동기	.36241	.13134	.01132	.08184	.02305	.13938	65.24***
		연약성	.36819	.13557	.01555	-.06684	.03256	-.06785	45.06***

** P<.01 *** P <.001

성공공포의 성차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이재창과 유계식(1996)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권 대학교의 남학생의 성취동기는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p<.01) 높으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창과 유계식(1996)의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의 성차는 우선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양성성 유형(x²=11.89, p<.001)과 여성성 유형(x²=18.221, p<.001)에서 성별 비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양성성 유형(33.2%)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여성성

유형(32.5%)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남성성 특성인 주동성(p<.01)과 공격성(p<.01), 그리고 여성성 특성 중 이타성(p<.05)에서 예상되는 바와는 반대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여성성요인 중 연약성(p<.01)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성공공포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제한되어있다. Horner(1972)는 성공공포점수가 높은 여성들의 89%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최근의 연구(Stewart, 1975)는 성공공포는

표 12. 진로결정을 예언하는 성공공포,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의 중다회귀분석 (여자)

종속변인		추가되는 독립변인	R	R ²	R ² ch	B	SE B	BETA	F
진로결정 유형	합리적 유형	성취동기	.35728	.12765	.12765	.11397	.01570	.35728	52.68***
	직관적 유형	이타형	.13284	.01765	.01765	-.04320	.01699	-.13284	6.47 *
	의존적 유형	주동성	.45252	.20477	.20477	-.12373	.01285	-.45252	92.70***
		연약성	.51792	.26825	.06348	.14066	.02329	.29139	65.80***
		공격성	.52956	.28043	.01218	.07240	.02940	.14023	46.51***
진로결정 수준	학교 적응	주동성	.32340	.10459	.10459	.16389	.02527	.32340	42.05***
		이타성	.39890	.15912	.05453	.18018	.03734	.23897	33.97***
		성취동기	.42269	.17866	.01954	.13881	.03662	.23023	25.96***
		성공공포	.44724	.20003	.02137	.07429	.02406	-.16782	22.32***
	직업 계획	주동성	.24197	.05855	.05855	.13145	.02778	.24197	22.39**
	진공	주동성	.32065	.10282	.10282	.17905	.02788	.32065	41.26***
		성취동기	.34367	.11811	.01529	.09912	.03972	.14921	24.04***

** P<.01 *** P <.001

특히 독신 여성들에게 있어서 진로의 지속성에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chwenn(1970)은 성공공포점수가 높은 16명의 여성 중 14명은 실제로 대학 3학년 이후에 보다 전통적이고 여성들에게 적합한, 그리고 보다 야망이 적은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전공과 진로계획을 바꾸었다(Esposito, 1977에서 재인용).

이승희(1984)의 여대생의 성공회피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공회피동기는 여자대학의 여대생이 남녀공학의 여대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인 전공분야의 여대생이 비전통적인 전공분야의 여대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취불안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전공분야의 여대생이나 여자대학의 여대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성공회피동기가 높은 여성들은 남자와의 경쟁과 사회적 성역할 기

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미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 정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탁진국, 1995)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 대학생의 경우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비전통적인 전공분야나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보다 높은 성공공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볼 수 있겠다.

Tresmer(1976)는 그의 연구에서 나타난 의과대학에서의 John에 관해 반응한 남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Horner가 보고한 9%보다도 훨씬 높아서 성공회피동기에서의 의미있는 성차를 볼 수 없고 여자들이 표현한 부정적 반응과 남자들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공공포는 여성만의 고유한 동기로 아동초기에 획득되어진 특성이라기 보다는 남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기존적 통념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공공포는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역할 정체감의 문제와 관련되어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하겠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이나 성역할 자아개념을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연구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남성은 주로 남성성을, 여성은 주로 여성성을 가졌다고 가정함으로써 성차연구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양성간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으며 심리적 양성성 개념은 정서적이고 동시에 독립적인 자기지각개념을 모두 의미하는 일종의 자아개념임을 강조하였다(Farmer, 1985). 예를 들어, Lunneborg(1978)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로결정과정의 측면들을 밝힌 세개의 논문에서 의사결정유형, 의사결정단계를 통한 과정, 그리고 직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 혹은 자기 보고된 직업적인 결정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Harren, Kass, Tinsley, 그리고 Moreland(1978) 역시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단계과정, 혹은 결정적인 위치(전공에 대해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에서 어떠한 성차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이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이러한 요인들은 다시 학업 전공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대한 성의 영향은 성역할이라는 매개 변인에 의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상담에서 내담자의 성역할 기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직 성에 근거하여 상담을 달리 한다는 것은 금기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성차보다는 개인차를 중요시하는 견해에 따라 자아개념의 대안으로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성역할과 관련된 성격 변인으로 사용한 여성의 진로선택과 진로동기 및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진로결정, 성공공포, 성취동기점수의 성차가 없고, 단지 성역할정체감 점수에서 성차가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이상에서 논의된 결론, 즉 진로결정의 차이는 단순히 성에 근거한 차이이기보다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고정관념 및 성역할정체감에 근거한다는 것과 일치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성공공포,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특히 진로결정수준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난 바,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적응에서 성취동기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주동성이 정적 예언에로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성공공포는 남학생의 경우에 직업계획수준에서,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적응수준에 각기 부적인 예언에로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의 진로지도 및 상담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결 론

이상에서 밝혀진 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성공공포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다. 성공공포의 점수는 남자대학생보다 여대생이 약간 높았으나 그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둘째, 성공공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취동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성공공포와 성취동기는 부적 상관이 있다. 또한 성공공포는 성역할정체감의 남성성유형과 양성성유형에서 낮은 점수를, 그리고 미분화성유형과 여성성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성 특성인 공격성, 주동성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여성성 특성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공공포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유형 중 합리적유형은 낮아지고 의존적유형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진로결정의 모든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성공공포는 합리적인 진로결정유형과 진로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넷째,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그리고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을 함께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전체대학생들의 진로결정유형 중 합리적유형을 정적으로 예언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성취동기이며, 의존적유형에서는 주동성이 부적예언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 중 학교적응에서는 성취동기가, 직업계획과 전공수준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 중 주동성이 정적예언

에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그리고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인들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학교적응수준에서 남학생은 성취동기가, 여학생은 주동성이 정적예언에의 기여도가 가장 컸으며, 직업계획과 전공수준에서는 남녀 모두 주동성이 가장 크게 정적예언에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에 차이는 성공공포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적응수준에서 부적 예언에의 기여도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직업계획수준에서 부적 예언에의 기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성공공포가 낮고 성취동기가 높으며 성역할정체감 중 남성성 특성의 주동성과, 여성성 특성의 이타성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진로결정유형과 그 결정의 수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 상담에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성공공포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사회화과정의 결과로 학습된 특성이다. 성공공포와 직업 선택의 관계에 대한 Esposito(1977)의 연구 결과는 성공공포가 높은 여성들의 직업적 흥미를 넓힐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또한 여성성의 존재보다 남성성의 부재가 성공공포와 보다 직접적인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성취동기와 성역할정체감 중 남성적 특성인 주동성이 진로결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여학생들의 경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남성성과 관련된 개인적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진로결정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여성성 특징을 감소시키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보다 넓은 상황이나 요구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확장시키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담자들은 성공공포가 낮은 여성들이 여성들로서는 개척자적인 진로를 선택할 때 이들을 지지해주고, 사회적 압력에 따라 그들의 개인적 흥미를 잠재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문조(1984). 청소년의 여성 성공공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고려사회학회 제5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됨(미간행).
- 김일명·이정덕(1995). 자녀의 직업성취에 미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동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 53-68.
- 김태련·장희숙(1987).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혜숙(1992). 성별 고정관념, 성차이와 양성성. 현대사회의 여성과 남성,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44-92.
- 김효성(1983). 한국 대학생의 성공회피동기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애선(1993).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영신(1987). 성취동기에 대한 귀인이론적 해석의 타당성에 관한 인과분석. 교육평가연구, 2, 37-76.
- 박용현(1982). 성취동기 육성의 교수방안. 서울: 교육출판사.
- 안한숙·유계식(1994). 1993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 103-182.
- 안한숙·송수민(1994). 199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 195-252.
- 유창열(1986). 성취동기 측정척 개발. 논문집(충남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 8(3), 10-16.
- 이승희(1984). 여대생의 성공회피동기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재창(1986).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체제적 상담 모형과 의사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홍익대학교), 2, 67-90.
- 이재창·유계식(1996).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홍익대학교), 13, 111-145.
- 임용재(1994). 성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임수정(1987).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공회피동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석민·서혜경·임재석·김홍원·하종덕(1986). 진로교육의 이론가 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 TM 86-7.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정채기(1991a).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정채기(1991b). 진로결정의 유형과 그 결정 수준간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건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창간호, 73-92.
- 탁진국(1995).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제'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심리학회.
- 한정신(1988). 성공공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77-100.
- 한덕용·전경규·이창호(1991). 한국 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 적응. 학생생활연구(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Atkinson, J.W., & Brich, D.(1978). *Introduction to*

- motivation*. New York: Van Nostrand.
- Basow, S.A.(1992). *Gender stereotypes and roles*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Bem, S.L.(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roverman, I.K., Broverman, D.M., Clarkson, F.E., Rosenkrantz, P.S., & Vogel, S.R.(1979). Sex-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m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1-7.
- Cano, L, Solomon, S., & Holmes, D.S.(1984). Fear of success: The influence of sex-role identity, and components of masculinity. *Sex Roles*, 10, 341-346.
- Caballero, C.M., Giles, P., & Shaver, P.(1984). Sex-role traditionalism and fear of success. *Sex Roles*, 1, 319-326.
- Deinhardt, B.C.(1973). *Motive to avoid success: A cross-national examination*. Unpublished honors thesis, Yale University.
- Esposito, R.P.(197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e to avoid succes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347-357.
- Farmer, H.S.(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63-390.
- Feather, N.T., & Raphelson, A.C.(1974). Fear of success in Australian and American student groups: Motive or sex-role stereotype? *Journal of Personality*, 42, 190-201.
- Feather, N.T., & Simon, I.J.(1973). Fear of success and causal attribution for outcome. *Journal of Personality*, 41, 525-542.
- Gravenkemper, S.A., & Paludi, M.A.(1983). Fear of success revisited: Introducing an ambiguous cue. *Sex Roles*, 9, 897-900.
- Harren, V.A., Kass, R.A., Tinsley, E.A. & Moreland, J.R.(1978). Influence of sex role attitudes and cognitive styles o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390-398.
- Harren, V.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offman, L.W.(1974). Fear of success in male and females: 1965 and 197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353-358.
- Horner, M.S.(1968). *Sex differences in achievement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situ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chigan.
- Honer, M.S.(1972).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hievement-related conflict in woman. *Journal of Social Issues*, 28, 157-175.
- Kahn, A.S., & Yoder, J.D.(1989). The psychology of women and conservatism: Rediscovering social chang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3, 417-432.
- Karpicke, S.(1978). *A study of sex differences in and counselor's perceptions of influences on college students' career plan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Karpicke S.(1980). Perceived and real sex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240-245.
- Levine, A., & Crumrine, J.(1975). Women and the fear of success: A problem in re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 964-974.
- Lunneborg, P.W.(1978). Sex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299-305.
- Major, B.(1979). Sex-role orientation and fear of success: Clarifying an unclear relationship. *Sex Roles*, 5, 63-70.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D. Van Nostrand.

- McClelland, D. C.(1965). Toward a theory of motive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29, 5.
- Mednick, M.T.S.(1979). The new psychology of women: A feminist analysis. In J.E. Gullahorn(Ed.), *Psychology and women*. Washington, DC: Winston & Sons.
- Mitchell, L.K. & Krumboltz, J.D.(1984).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counseling, In S.D. Brown & H.A. Murray(Eds.),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urray, H.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iece, D. & Bradley, R.W.(1979). Relationship of age, sex and educational groups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71-278.
- Orlofsky, J.L.(1981). A comparison of projective and objective fear of success and sex role orientation measure as predictors of women's performance on masculine and feminine tasks. *Sex Roles*, 7, 999-1018.
- Pappo, M. *Fear of success: A theoretical analysis and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measuring instru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
- Pinder, F.A. & Fitzgerald, P.V.(1983). The effectiveness of a computerized guidance system in promoting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126-135.
- Sadd, S., Miller, F.D., & Zeitz, B.(1979) Sex roles and achievement confli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 352-355.
- Schwenn, M. (1970). *Arousal of the motive to avoid success*. Unpublished junior honor thesis, Harvard University.
- Sharf, R.S.(1992).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hinn, M.(1973). *Secondary school coeducation and the fears of success and failure*. Unpublished honors thesis, Harvard University.
- Stewart, A.J.(1975). *Longitudinal prediction from personality to life outcomes among college-educat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Tresemmer, D.W.(1977). *Fear of success*. New York: Plenum Press.
- Veroff, J., Depner, C., Kula, R., & Douvan, E.(1980). Comparison of American motives: 1957 versus 1976.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249-1262.
- Weiner, B.(1980). *Human moti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Weston, P.J., & Mednick, M.T.(1970). Race, social class, and the motive to avoid success in wom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284-291.
- Zuckerman, M. & Allison, S.N.(1976). An objective measure of fear of success: Construct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424-427.
- Zuckerman, M., & Wheeler, L.(1975). To dispel fantasy-based measure of fear of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82, 932-946.

A Study on the Effect of Fear of Succes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x-role Identity on Career Decision Making

Kye-Shik Yoo Jae-Chang Lee

Hong 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fear of succes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x-role identity affect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as measured by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ACDM) and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PAQ).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866 male and 362 female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results for the study are as follow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fear of success scale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classified by the types of sex-role identity scale. Students scored low in the fear of success scale have higher scores in masculine type scale and androgynous type scale, while the type of career decision making was more rational and the levels of career decision making appears in high level. Using stepwise method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achievement motivation scale was most positively correlated with rational score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school adjustment level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Initiative scale of masculine characteristics was mos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lanning career orientation, and major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result of stepwise method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for the male students, achievement motivation scale is most posi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adjustment score of career deci-

sion making, while for female students, initiative scale of masculine characteristics was most positively correlated with it. And for male students, fear of success scal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core of planning career orientation level, while for female students 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core of school adjustment level.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whe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 is planned for college studen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ersonal characteristics instead of gender classification. Especially, it seemed very crucial to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female students to develop initiativ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personal skills of masculine characteristics of sex-role ident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